

자유놀이에 나타난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의도

The Intention dur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fants and Their Teachers while Playing Freely

조혜경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Hye Kyung Cho(hukin1@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의 자유놀이에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교사가 각각 상호작용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검토하여 발달을 도모하는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은 영아 9명과 영아반 교사 3명이다. 자료 수집은 영아의 오전일과에서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캠코더로 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3개월 동안 총 24회 관찰과 교사와 심층면담 그리고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생활안내 책자, 일간/주간/연간계획안, 관찰기록, 행동발달 관찰기록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인 자유놀이에 나타난 영아의 상호작용 의도는 첫째, 어떻게 놀이해야 하는지를 알기위해 둘째, 일상 관련한 그림책의 내용을 보기위해 셋째, 정서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인 자유놀이에 나타난 교사가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는 첫째, 사물탐색과 놀이시도를 돕기 위해 둘째, 교사중심에서 영아주도의 놀이전이를 위하여 셋째,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영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영아 중심적 관점에서의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장기적·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

■ 중심어 : | 영아 | 교사 | 자유놀이 | 상호작용의 동기 | 질적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teachers interaction is who try to develop their infants, by examining the intention of begin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their infants, while playing freely at a child care center. The author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nine infants and three teachers. The author videotaped all the sess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their infants. The author observed all the sessions for three months. The author also interviewed the teachers. She also collected the manual of the target daycare centers, its study plans, its observation logs, and the observation logs of the infants' activities and analyzed them. The intention of infants' interaction with their teachers is to know how to play by using some toys. A second intention is to see the contents of the picture book related to the daily routine. A third intention is to satisfy emotional needs. The intention of teachers interaction with their infants while playing freely is to help explore things and try to play. Another intention is to make a transition from teacher-centered play to infant-centered one. A third intention is to pacify infants expressing thoughts by crying. A future research which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s and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will focus on infants will be needed.

■ keyword : | Infant | Teacher | Free Play | Intention of Interaction | Qualitative Research |

I. 서론

여성의 사회진출, 자아실현, 무상보육 등의 실시로 말미암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수는 전체 영유아 수의 94.5% 를 차지하고 있어[1] 영아보육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이 제공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영아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면서 부모관계 외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된다. 영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쌓이면서 소위 상호관계가 형성·유지된다[2].

영아가 경험하는 보육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고 건강한 발달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3] 영아 자신의 존재감과 실체를 느끼고 인식하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발달해 나간다[4]. 더욱이 영아가 경험하는 양질의 경험은 영아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돕고 촉진시킨다[5]. 따라서 교사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영아의 흥미나 관심을 확장시켜 발달을 조성하고 영아로 하여금 활발한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와 반면에 교사는 보육하는 과정에서 영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시도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영아를 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 해결이 어렵고 난감할 때가 많다[6].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연구에서 보육 교직원과 부모 모두가 선호하는 영아반 보육교사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이며, 특히 영아반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은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 방법이라 주장하였다[7]. 이는 교사와 영아 간의 양질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지를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표현하는데 서툴 뿐 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사가 영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가끔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아는 미성숙한 존재이며 수동적인 학습자로 인식되어 성인은 영아를 양육할 때 주도적으로 먼저 가르치고 도

와주려는 의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2][8][10][11]에 따르면 영아는 환경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학습자이며 유능한 사회적 존재라는 영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승연[9]은 영아교육이란 활동이 아니라 관계를 계획하는 것에 기초하고, 성인주도가 아닌 영아주도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직 언어로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1세의 경우 교사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활발한 자유놀이시간[12]에 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유놀이시간은 영아의 흥미,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놀이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영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놀이감을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상황이기에 영아 뿐 아니라 교사의 의도가 풍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유놀이에 나타난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상호 작용이란 타인과 함께 하는 상호교환이므로 누구의 시도로 시작된 상호작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10].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이란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면의 동기나 정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시작 주체에 따라 영아에 의해 시도된 상호작용과 교사에 의해 시도된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시작한 상호작용의 의도와 영아가 먼저 시작한 상호작용의 의도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13].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동기, 모습, 양상과 관련한 연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반 영아가 교사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동기와 교사가 영아에게 시도하는 동기 둘 다 놀이동참요구이며[14], 1세 영아는 교사의 정서적 지원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놀이친구로서 영아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15]. 0세반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 양상은 영아의 신체적 욕구, 정서적 욕구, 놀이하

고 싶은 욕구, 또래와의 갈등해결 욕구에 교사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아보다는 교사가 지시하기, 환기하기로 놀이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높았다[16]. 그래서 본 연구는 영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를 알아서 영아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가능성을 찾고자하였고, 교사가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의도를 알아서 교사가 어떻게 적극적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 질적인 상호작용의 토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교사의 놀이형태 및 실효, 효능감과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15][17][18], 교사의 정서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19-21],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교사의 변인간의 관계 연구[22]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며 질적 연구라 할지라도 혼합연령이거나 연령이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져 1세를 대상으로 한 영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최근까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의 자유놀이에에서 나타난 영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영아중심적인 상호작용의 질적 담구를 통하여 영아를 담당하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양질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놀이에에서 영아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는 어떠한가?
2. 자유놀이에에서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자유놀이에에서 영아와 교사가 시작하려는 상호작용의 의도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사용한다. 영아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영아를 연

구하는 연구방법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사고를 알 수 있게 하므로[23] 영아의 의도와 영아를 이끄는 교사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질적 연구는 서술적 지식(ideographic body of knowledge)을 생산해 낸다. 서술적 지식이란 연구대상의 개별사례에 대해 풍부하고 심층적인 서술을 제공하여 독자가 관심 갖는 영역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서술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핵심적 양상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다[24].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1세 영아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주요한 의도를 각각 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아교사가 영아의 의도를 알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교사의 의도를 인식하여 상호작용의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국공립 B어린이집의 1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기간은 3개월 동안 관찰로 이루어졌다.

1. 연구기관 및 새싹반 교실

1세의 영아와 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교육적환경이 잘 갖추어져있는 영아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 M 어린이집 새싹반은 총 3명의 정 교사와 9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 건물로 연구대상 새싹반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2. 새싹반의 교사와 영아

B 어린이집의 1세를 보육하는 정교사는 세 명으로, 그 중 박교사는 미혼인데 경력이 만 7년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최교사는 기혼자로서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하고 경력 1년의 교사이며, 김교사는 미혼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새싹반 영아는 전체 9명으로 남아는 5명, 여아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의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9명의 영아와 3명의 교사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 녹화한 후에 전사하였다. 자유놀이시간은 영아에게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소리내기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12]시간이며, 교사의 상호작용 또한 2세보다는 1세에게 더 많이 나타나므로 교사의 상호작용 의도를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7].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구분	내용
관찰 및 녹화 초점	3명의 교사 9명의 영아와의 상호작용 녹화 후 전사
자료수집 기간	관찰 12주(3개월) X 2회 = 24회
영아 평균월령	16.3개월~18.3개월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논리적 추론에 의해 타당도가 설정되므로 자료해석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Denzin[26]의 삼각측정법인 문서수집과 참여관찰 그리고 심층면담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접 목격한 행동과 사건과 맥락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연구자의 느낌과 의견 등을 현장 기록노트에 메모하는 문서 수집을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하면서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시작의 의도를 발견하려는 열린 자세를 갖고 현장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였다.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일정한 상황에서 교사 혹은 영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상호작용의 의도라는 실제에 근접해 보고자 하였다[25].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연구자의 다각화[25]를 시도하였다. 자료원의 다각화로 영아와 교사가 자유놀이시간에 상호작용하는 전체 맥락을

조망하고자 하였고, 연구자의 다각화로 영아전문가 관점에서 영아-교사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에 대한 범주가 1세 영아에게 적절한지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방법

타당도	삼각 측정법	문서 수집: 목격한 행동, 사건 맥락을 상세히 기술하며 연구자 느낌과 의견 현장 기록노트 기록
		참여관찰: 개입하지 않고 상호작용 현장 직접 관찰하며 종합적, 상황적 이해
신뢰도	다각화	심층면담: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상호작용 의도라는 실제에 근접
		자료수집의 다각화: 관찰전사자료, 어린이집 운영 및 관찰자료(생활안내책자, 교육계획안, 행동발달 관찰기록) 연구자의 다각화: 영아교사경력 10년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교사

자료분석을 위한 범주화과정은 1세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영아가 시작하려는 상호작용과 교사가 시작하려는 상호작용인지를 구분하여 상호작용의 시작의도에 대해 예비범주를 목록화하면서 무수한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확인하고 구분해서 범주화하였다.

V. 연구결과

1. 영아가 먼저 교사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

1.1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놀이감 탐색하기

만1세 영아가 언어적 표현 없이 비언어적인 동작으로 교사에게 놀이감을 가져와 내미는 행동은 놀이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해야 할지 몰라서이므로 영아는 교사가 놀이하는 것을 본다(교사 심층면담). 영아는 교실 내에 있는 놀이감을 가져와 교사에게 갖다 주었고 교사는 놀이감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손에 끼고 입 벌리기, 물기, 잡기, 인사하기 등)를 보여주었다.

영아: 악어 손 인형을 가지고 와서 교사에게 준다.

교사: “어” “악어 왔다” “앙”

(손가락으로 악어 입을 벌려 영아를 향해)

“ 앙 ” 잡았다 “

(영아 손에 손인형 끼워주며 무는 척 한다)

“ 앙 ” “ 아얏 ”

영아: 혼자서 손 인형을 움직여 본다

악어 손 인형을 자기 입에 대고 무는 흉내 낸다

영아는 교사의 활동을 보고 부분적으로 따라하였고 교사는 영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며 영아의 관심을 끄는 인형 엮기, 아기 먹이기, 인사하기 등의 활동을 보여주며 반응하였다.

교사: 어부바 해줄까? 포대기로 인형 엮어준다

(인형 품에 안고) “소현아” “아기 정말 예쁘네”

(당근을 주며) “ 암남남남 ” “ 먹고 있네 ”

영아가 교사에게 놀이감을 가져와 상호작용을 하는 의도는 놀이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놀이감이 작동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아: 세준이가 와서 달팽이 놀이감을 가지고

“ 아아 ” 하면서 내민다

교사: (교사가 만져보았는데 작동이 안 된다)

“ 응 ” “ 잘 안되요~ ”

(교사가 해도 잘 안되자 자기도 해보며 안 되니까

다른 교사에게 해 달라고 갖다 준다)

놀이감 탐색에는 또래의 놀이감도 포함된다. 영아들은 처음에는 또래를 응시하다가 관심이 있을 때 또래를 바라보고 손짓과 소리내기 그리고 몸짓을 하며 다가간다. 만 1세 영아는 놀이감 탐색을 거치며[27] 또래가 놀이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어서 교사에게 우는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영아는 누르면 소리나는 또래의 놀이감 활동을 보고 알고 싶어서 놀이감을 향해 손짓을 하며 우는 소리를 내었다.

교사1: 수현이가 (누르면 소리나는) 놀이감을

누르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

예원: 수현이가 활동하고 있는 놀이감에 손을 내밀며

우는 소리를 내고 만지려고 한다

교사1: 예원이 “ 나도 좀 보여줘 ” 그러네

열어서 소리 들어보자

수현: 다시 한 번 놀이감을 누르자 소리가 난다.

예원: 소리나는 놀이감을 들고 일어나 떨어져있는

교사2에게 간다

수현: 우는 소리로 놀이감을 달라고 손짓을 한다.

교사2에게 “엄마 엄마” 하며 기어서 다가가

예원이 놀이감을 빼앗으려 한다

1세 영아의 놀이행동 특성은 상대영아의 놀이를 혼자 보다가 비언어로 다가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놀이행동을 따라하며 또래 옆에 머문다[28]. 영아는 또래가 놀이하고 있는 놀이감을 바라보며 놀이하고 싶어서 영아는 교사에게 몸짓과 함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놀이감을 빼앗으려 하였다.

영아는 교사에게 놀이감을 가져와 같이 놀이하면서 놀이과정에서 갑자기 놀이감을 던지며 우는 행동을 빈번하게 나타냈다.

영아: 교사에게 포크를 준다

교사: 받아서 먹는 척 한다

손가락으로 휘젓는 척 한다

영아: 컵에 있는 수저로 떠 준다

교사: 받아먹는 척 한다

영아: 갑자기 컵과 수저를 던지며 운다

교사: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큰 그릇을 주며)

이 큰 그릇에 할까?

(안아주며) 짜증났어?

영아: 컵을 가리킨다

교사: 어 그래 마음대로 안됐어?

컵을 펴서 건넨다

영아: 컵 안을 수저로 떠 먹는다

(몇 걸음 걸더니) “ 아 ~ ” 하고 운다

교사: 뭐 줄까?

영아: 와서 안킨다
 교사: 마시는 척 한다
 영아: 싱크대를 가리킨다
 교사: 끄덕인다
 영아: 혼자 싱크대에 가서 놀이한다.
 다가와 컵을 내민다
 교사: 아 시원하다

영아는 자신의 생각이 교사와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교사는 영아의 의도를 찾기 위해 “~을 이렇게 할까?” “~을 원하는 거니?” 라는 질문을 통해 영아의 요구를 알아가며 영아가 자율적 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놀이감을 던지거나 우는 영아의 반응에서 교사는 영아의 의존성과 자율성의 공존으로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도전행동과 반전을 경험하였다. 전문성이 높은 영아교사는 영아에게 자율행동의 기회를 많이 주어 영아가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발달의 전이를 이루도록 영아를 이해하고[29] 돕는다.

1.2 일상 관련한 그림책의 내용을 보기위해 : 사물의 이름과 특성 그리고 기본생활습관

영아가 친근한 사물이나 행동이(자동차, 안경, 이뿃기 등) 포함된 그림책을 골라서 교사에게 갖고 온다. 교사는 그림책에 나오는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고 특징과 위치 등을 말하며 동작과 의성어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영아가 책을 가져와 교사에게 준다
 교사1: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도록 한다
 교사2: 사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표현한다
 자동차소리, 사물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그림책에 자동차가 나오자)
 준희 빠방 옥상 가서 빠방 봤어?
 (그림책에 안경그림이 나오자)
 손가락으로 안경모양 만들며 눈가에 대기
 선생님 안경, 준희 안경

교사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보도록 제안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사물의 특징을 동작으로 표현하고 상황을 상상하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교사: 그림책을 보여주고 기본생활습관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읽어준다
 영아들 : 여러 명의 영아들이 책을 가져온다
 교사: 책에 나온 사물을 보고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쩍쩍”소리를 낸다
 영아: 재호도 교사처럼 따라한다
 교사: 재호도 먹어?
 영아: 눈을 가리키며 “안경”
 교사: 두 손을 동그랗게 만들어 눈가에 댄다
 ‘안경’ (재운이 눈가에 두 손을 대며) ‘안경’
 영아: 준희, 세준이가 이 소리를 듣고 온다
 교사: 준희도 ‘안녕’ 세준이도 ‘안녕’
 교사: 양말 신으면 따뜻해요

표준보육과정 영역에서 영아교사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 기본생활영역이므로[30] 교사는 영아와 그림책을 보고 읽어주면서 씻기, 이뿃기, 잠자기 등 기본생활습관 행동과 사물특징을 동작으로 표현하면 영아는 그 행동을 부분적으로 따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그림책에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다른 그림책을 교사에게 갖다 주었다. 교사는 그림책의 사물 관련 가상 놀이로 이끌며 특정 사물 이해를 도와주었다. 최근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그림책 유형에서 자연탐구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1] 이러한 주제의 그림책도 영아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1.3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 신체적 접촉과 관심 그리고 위로 받기

영아는 교사와 활동을 하면서도 갑자기 순간순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는다. 교사는 가족사진으로 관심전환을 하거나 놀이감으로 놀이를 안내하지만 엄마를 찾는 영아의 요구는 지속적이다.

수현: 혼자서 손인형을 움직여보다가 교사에게 온다
 교사: 수현에게 손 인형을 손에 끼워준다
 수현: 악어 손 인형을 자기 입에 대고 무는 척 한다
 “엄마” “엄마” 하면서 계시판의 가족사진을
 가리킨다
 교사: (함께 계시판을 쳐다보며) “엄마 거기 있어?”
 “응~ 엄마야”
 수현: 악어 손인형을 손에 끼면서 “엄마” “엄마”하며
 엄마를 찾는다

영아는 교사에게 놀이감이나 책을 가져와 비언어적 인 몸짓으로 책을 읽어달라고 혹은 어떻게 놀이하는지 알기위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교사에게 안기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호작용을 병행하였다. 교사들은 영아가 책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책을 통해 정서적 측면의 충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많다고 하였다(심충면담). 영아가 책을 교사에게 가져오면 교사의 무릎이나 품 안에 안겨서 가깝게 신체적 친밀감을 느끼며 책 읽고 듣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하였다(심충면담).

교사: 예원이가 놀이하고 있는 옆에 앉는다
 예원: 놀이감을 갖고 교사 가까이로 기어 온다
 교사: (예원의 생각을 대신 표현한다)
 “이거 내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예원: 교사 품에 안긴다
 교사: 예원이를 안아서 무릎위에 앉히고 책을 읽는다

영아는 활동 중에도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정서적 필요를 표현하였고, 애착을 형성한 교사와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정서적 필요를 채워갔다.

영아는 놀이감을 가져와 교사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받고자 하였다. 교사는 영아에게 가깝게 와서 활동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예원: 교사에게 인형과 포대기를 가져온다
 교사1: “예원이” “어부바할거야?”

“예원이” “이리와 봐”
 “어부바하자” (인형을 포대기로 싸준다)
 예원: 인형을 풀리달라고 한다
 교사: 인형을 포대기에서 풀려서 품에 안고
 “자장~ 자장~” 인형을 재우는 척 한다
 세준: 교사2에게 인형을 가져가 어부바해달라고
 한다. 교사1에게 가서 자랑하고 다시 교사2
 에게 와서 포대기를 풀른다
 교사2: “어?” “인형이 빠졌어?”
 소현: 교사3에게 어부바 해달라는 듯
 교사 등 뒤에 매달린다. 어부바 해 준다
 준화: 인형을 어부바해달라고 포대기와 인형을
 가지고 온다. 교사2에게 보여주려고 온다
 교사2: 선생님이 어부바 해 주셨어?

영아들에게 그림책은 특히 교사와의 신체적 접촉의 계기가 된다. 영아가 책을 가지고 와서 교사의 품이나 무릎에 안기며 신체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함께 책을 보고 읽는다. 영아가 그림책을 보다가 자신이 경험한 알고 있는 그림을 발견하고 교사에게 책을 가져오자 교사는 영아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영아: 책을 가져와 교사에게 주며 안긴다
 교사: (영아를 안으며) 책 보다가 왔어?
 (펼쳐진 책에 주사기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았지?
 영아: 손으로 주사기를 가리킨다
 교사: (재호 손을 살피며)
 여기서 주사 놔 주셨어? 아팠겠다
 영아: (교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
 교사: 그래도 안 울고 잘 맞았어?

영아의 경험을 알아달라는 의도를 알아차려서 교사가 공감하며 인정하는 표현을 하자 영아가 가만히 교사의 정서적 지원을 받아들인다.

영아는 또래가 아파서 교사에게 위로받는 것을 보고 영아도 의도적으로 사물에 부딪쳐서 교사에게 달려가 교사의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영아는 교사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위하여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하였다.

준희: 멀리서 “ 아 ~ ” 소리를 지르며 교사에게 뛰어온다

교사: 준희를 안아준다

준희: 다시 사물함 쪽으로 뛰어가다가 사물함에 부딪친다. 아프다고 교사에게 온다

교사: “ 아프지? ”

(머리를 쓰다듬으며) “ 여기가 아프지? ”

세준: (이 장면을 보고 사물함에 가서 부딪치고 와서 교사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온다)

교사: 세준이도 아팠어?

세준: (이마를 가리키며) 교사에게 온다

교사: “ 아팠어? ” “ 서랍장에 부딪쳤어? ”

(이마를 만져주며) “ 빨리 나아라 ”

세준: 기분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뛰어간다

교사: 전화기를 넣어주며 “ 따르릉 따르릉 ”

전화 오는 소리를 낸다

영아: 전화기 버튼을 계속 누르며 전화를 받는 척 하며 “ 네 ” “ 네 ” 대답을 한다.

전화기를 들고 텐트 안에 들어가 한참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

교사: (지켜보다가 영아를 부른다)

“ 김세준 ” “ 까꿍 ”

영아: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밖으로 나오면서 전화기 버튼을 누른다

교사: “ 따르릉 따르릉 ”

(전화오는 것처럼 입으로 소리낸다)

영아: “ 네 ” “ 네 ” 하며 전화를 받는다

교사의 전화기 소리에 영아는 간단히 대답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놀이시도는 계속되었다.

2. 교사가 먼저 영아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

2.1 사물탐색과 놀이시도를 돕기 위해

: 놀이활동을 보여주면 움직임으로 따라하기

교사는 특정 사물의 놀이 활동을 보여주면서 영아가 사물탐색을 시도하도록 돕고자하였다. 교사의 보여 주기를 통해 영아는 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자기수준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사물탐색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교사는 영아의 활동을 따라하면서 영아가 다음 활동을 이어가도록 동기화하였다.

교사: 분유통을 굴리며 “ 받아라 ”

영아: 분유통을 손바닥으로 치기

교사: 교사도 치기

영아: 곡식 마라카스 흔들기

교사: 마라카스를 갖고 노래 부르며 자동차인 척 움직인다

영아: 마라카스를 자동차인 척하며 움직인다

영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도록 교사는 상호 교류적인 놀이감(예. 전화기 등)의 특징적인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하자 영아는 새로운 탐색활동으로 반응하였다.

영아: 정글텐트 안에서 한참동안 앉아있다

2.2 영아주도의 놀이 전이를 위하여 위하여: 영아가 관심있는 활동으로 안내하여 반복놀이를 이끔

1세는 자발적으로 걷기 시작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있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이므로[32]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전환보다는[33] 영아의 신호와 요구에 민감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질적인 상호작용의 출발이다.

교사는 영아가 다른 또래의 활동을 계속 쳐다보는 행동을 영아가 관심 있어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여 동일한 활동을 제공하며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영아가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 관심을 나타낼 때 교사가 그 활동으로 안내하면 영아는 따라하였다. 특히 노래를 부르며 활동할 때 영아들이 흥미를 갖게 되므로 영아가 쉽게 따라부르는 동요를 포함하였다[34].

영아: 옆 친구가 달팽이 놀이감을 타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본다

교사: “ 바구니 가져와 봐 ”

“ 빨간 자동차가 ~ ”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에 영아를

태우고 밀었다 당겼다 한다

영아가 관심 있는 활동이 반복되면서 놀이는 점차 교사주도에서 영아주도로 전이되어 구성놀이에서 가상놀이로 진행되었다. 활동 초기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까꿍 놀이와 생일축하 놀이로 시작되었는데 영아가 좋아하면서 영아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반복놀이로 발전되었다. 까꿍놀이 초기에는 교사가 먼저 숨고 영아가 찾는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영아가 스스로 숨고 교사가 찾는 놀이로 발전되었다. 교사 주도 놀이에서는 대부분 교사의 일방적 언어 표현이 많았던 반면에 영아주도로 전이되면서 영아는 비언어적인 움직임으로 반응하였다.

미끄럼틀 위의 준희를 보고 교사가 빨간 천을
준희 얼굴 위에 덮는다

교사: “이준희 없다” “준희 어디갔지?”
(천을 찢으며) “쌩~” “여기 있었네?”
(재윤이가 걸어오는데 천을 두르며)
“재윤이 없다” “재윤이 어디 갔지?”

영아1: (천을 벗는다)
교사: “쌩 여기있다”
영아2: 준희도 빨간 천을 가져온다
교사: “준희 없다” “안보여” “까꿍”
준희가 얼굴을 보여주니 나왔네!
영아2: 천으로 교사를 가린다
교사: “선생님도 없다” “까꿍”
영아2: 천으로 얼굴을 덮는다
교사: “초록색 보자기에 재윤이가 숨어있지”
“까꿍” “재윤이 없다”
(재윤이는 좋다고 소리를 크게 낸다)
교사: 너무 좋아서 소리를 크게 내네!

놀이상황을 이끌어가는 교사는 까꿍 놀이의 주요단어인 “까꿍” “~ 없다” 를 주로 표현하면서 여러 영아와 반복하며 상호작용을 하였다. 놀이에 참여한 영아들은 유사하게 적용되는 놀이상황 속에서 경험할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면서 즐거움을 더했고 영아의 놀이동기를 불러일으켜 활발한 놀이가 되었다.

교사: 블록으로 케익 만들어주세요
영아: 블록으로 케익을 만들기 시작한다
교사: “와” “다 만들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부른다
영아1,2: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수현이,
소현이가 와서 쳐다본다
교사: “하나 둘 셋” 하면 “후 부는 거야”
영아: 따라서 “후~” 부는 척 한다

교사는 생일축하놀이에서 블록을 케익으로 만들어달라는 구성놀이를 제안하자 영아가 블록으로 케익을 만들고 촛불을 끄며 케익을 나누어먹는 가상놀이의 시작을 나타냈다. 교사는 영아가 관심있는 활동을 반복·제공함으로써 구성놀이에서 가상놀이로 전환하는 놀이의 진전을 이루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영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관심있는 활동을 반복하도록 교사는 영아의 반응을 되묻고 확인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들이 빈번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아의 언어적 반응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35]을 맞추어나가는 교사를 임승렬 외는 그의 연구에서[6] “영아와 조율하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면서 놀이를 영아의 상황에 맞추어가는 교사, 영아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 주는 교사로 격려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는 교사와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2.3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달래기 위하여 : 교사는 관심 돌리기, 일과순서와 가족사진보며 이야기하기로 달래면 영아는 울음을 멈추기

비언어적인 몸짓과 울음 등으로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달래기 위하여 교사는 관심 돌리기, 일과순서 이야기 해주기, 토닥이거나 안아주는 부드러운 신체적 접촉하기, 영아의 행동이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기, 영아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주기, 가족사진보며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누워서 울고 있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영아가 평소애 흥미를 갖고 있는 어항의 물고기에게 먹이주기를 하면서 관심을 돌려주어 영아가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교사: (누워서 울고 있으니까) 예원이
 일어나세요 “ 물고기야 안녕? ”
 이 소리에 예원이가 일어난다
 영아: 경중경중 뛰며 수족관을 친다.
 다른 영아들도 수족관을 바라본다
 영아: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다가 갑자기 운다.
 누워서 발로 친다. 일어나 앉아서 운다
 교사: 안 할거야? 다른 거 하자
 등 토닥여주고 안아준다
 뭐 좋아하는거 해볼까?
 물고기 맘마 즐까?
 (떡이를 어항안으로 주며) “슉”
 물고기야 많이 먹어
 영아: 울음을 그친다

신체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우는 영아에게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기위해 질문과 제안을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달래기 위해 영아의 등을 토닥이고 안아주는 부드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울음을 진정시키자 영아는 점차 울음이 잦아들며 울음을 멈추었다.

영아: 징징거리며 운다
 교사1 :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운다
 교사2 : 멀리서 보고 다가와 안아준다,
 등을 토닥여준다.
 안고 돌아 다니며 소곤거리려 이야기한다
 “속상해? 속상했어? ”
 이따 우리 이야 가자 재미있게 놀자 “
 영아: (울음을 점차 멈추고) 가만히 듣고 있다

영아가 무엇이 속상한지 물어보고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는 언어로 영아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울음을 달랜다. 교사는 영아가 우는 행동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차분하게 영아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일과 순서를 알려주었다. 영아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주도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다[6].

영아: 얼굴을 바닥에 대고 영영 운다
 교사: (영아를 안고 영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 놀이감 정리하고 맘마 먹고 옥상에 갈 거예요 ”
 “ 선생님이 신발도 가져왔어.
 “ 이제 정리하러 가자 ”
 영아: 울음을 그치고 신발을 신는다

교사는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싫은 영아를 달래기 위해 영아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주는 질문과 영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영아가 하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며 영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였다.

교사: “ 안녕 준희야 ” “ 어서와 ”
 준희: 울면서 교실로 들어온다
 교사: “어 속상해?”“엄마랑 헤어지기 속상해?”
 (영아를 안아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린다)
 이거 재운이 젖병이지?
 (준희가 울음을 그치자) 어? 뚝 그쳤어?
 (손 씻기며) 여기 모기 물렸어?
 부은 것 좀 봐! 단단해졌네!
 편안한 내복으로 갈아입힌다

영아: 갑자기 운다
 교사: 어? 옷 입기가 싫었대
 영아 : 계속 운다
 교사: “자 좀 누워있어 ”
 “ 선생님은 가방 좀 정리할게 ”
 영아: 계속 운다
 교사: 어 속상해요? (등을 토닥인다)
 이리 와 봐 안아줄게 (안고 다닌다)
 영아: 조용해진다

교사는 영아를 보육하는 일상에서 영아를 달래기 위해 교실벽면에 붙어있는 가족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교사: (영아를 안고 교구장 위의 사진을 가리키며) “ 엄마 여기있네 ”
 (손 흔들며) “안녕 ” “ 아빠 안녕 ”

”아빠 저녁에 만나요 ”
 “수현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
 “엄마가 재미있게 놀고 오라 하시네
 영아2: 윤희도 가족사진을 보고 싶어한다
 교사: (윤희 안아서 올린다) “윤희야 ”
 “엄마도 여기 계시네 ”
 (윤희가 가족사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내린다)

영아의 발달적 특징과 미숙함으로 인해 자주 울거나 급작스럽게 울음이 터지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교사는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부드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차분하게 언어로 질문을 하며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려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자유놀이에서 영아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를 관찰하여 영아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영아가 먼저 교사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는 첫째, 어떻게 놀이해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놀이감 작동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서 교사에게 놀이감을 가져왔다. 교사는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주었고 영아는 부분적으로 따라하였다. 둘째, 일상 관련한 그림책의 내용을 보기위해 영아는 교사에게 책을 가져오며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교사는 사물이름 명명하기와 사물의 특징을 의성어로 표현하고 먹기와 이 닦기 등은 동작으로 표현하며 영아의 이해를 돕고자하였다. 셋째, 정서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영아는 교사를 찾으며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가까이 있는 교사와 신체적 접촉을 하고 관심 받고 위로받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16~18개월의 영아로 정서적으로 애착형성단계이므로 양육자와의 안정애착 형성을 요구하는 시기이므로 교사와의 애착이 이루어

어져야 탐색활동이 가능하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영아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착오적 탐구행동을 나타나고 이를 적용해보는 발달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33].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가 먼저 영아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는 첫째, 사물탐색과 놀이시도를 위하여 놀이활동을 보여주었다. 둘째, 교사중심의 놀이에서 영아주도의 놀이전이를 위하여 영아가 관심 있는 활동으로 안내하며 반복놀이를 이끄는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셋째,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달래기 위하여 교사는 관심 돌리기, 일과순서와 가족사진 보며 이야기하기로 달랬고 영아는 울음을 멈추었다.

요약하면, 1세 영아들이 교사에게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하는 의도의 배경에는 놀이와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즉,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을 채우려는 인지적인 의도와 엄마를 찾으려 관심받고 싶은 정서적 의도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사가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기저에는 영아가 관심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탐색과 놀이시도를 하고 반복놀이를 통해 점차 놀이를 주도하는 영아로 발달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다. 영아와 교사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교사와 안정된 관계를 가졌다[14]. 영아가 상호작용을 하는 의도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가 영아의 최적발달의 도모라는 일맥상통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교사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맥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 교사는 영아가 어릴수록 성인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사 중심적 입장에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1세와의 상호작용에서 그동안 영아는 보호와 안내를 받아야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양육대상자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교사도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가 있지만 영아도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10][12] 알게 되었다. 만1세는 자발적으로 걸으며 자신의 관심사에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시기이므로[37] 교사의 적극적 개입과 관심전환보다는 영아의 신호와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정서적

안정을 형성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38]. 그러므로 1세 영아가 상호작용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교사의 주도적 상호작용이 아닌 반응적 상호작용[36][39]을 시작하는 신념이 필요하며, 자유선택놀이에서 교사중심 놀이에서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로 전이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아가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하며 놀이감과 그림책을 가져와 교사와 함께 활동하는 중에 영아들이 갑자기 울며 놀이감을 던지는 예상치 못한 도전행동을 나타냈다. 이는 영아가 의존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적극적 표현이 다양하고 가능하다[6][35]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교사는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며 적합한 초기반응을 하는 가운데 자율성의 전이[29]를 이루어 나가도록 안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영아보육 현장의 영아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영아-교사 상호작용에서 1세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교사에게는 영아의 최적 발달의 도모를 위하여 영아중심의 자율성으로의 전이를 이루는 상호작용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길지 않아 교사와 1세 영아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의도와 반응의 결과와 그 추이를 살피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연구에서는 영아반에서 참여관찰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영아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신체와 언어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아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의도와 반응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이해로 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의 수행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세종:보건복지부, 2016.
- [2] 하지영,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
- [3] R. E. L. De Kruif, R. A. McWilliam, S. M. Ridley, and M. B. Wakely, "Classification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5, No.2, pp.247-268, 2000.
- [4] 양심영, 이옥임, "영아-교사 상호작용 증진 교사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인식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권, 제7호, pp.43-66, 2011.
- [5] Cost Quality & Child Outcomes Team. Cost, Quality and Child Outcomes in child care center. Executive summary(2nd ed.). 1995.
- [6] 임승렬, 전방실, 곽한나, 조은비, 김덕희, 김영란, "영아반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 의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425-449, 2018.
- [7]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영아보육실태 및 질 제고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원, 2013.
- [8] 박현정, *교사-유아 상호작용 시작과 참여 유아의 기질 및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 [9] 이승연, "국내의 '영아' 관련 연구물의 최근 동향 분석: 2000년~2013년 발간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46권, 제3호, pp.91-117, 2015.
- [10] 서소정, "영아의 보육기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발달, 기질,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 및 보육신념과 적응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59-288, 2009.
- [11] 강현정, *영아시도와 교사시도의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4.
- [12] 황인애, *만1세반 영아의 교사와 또래 간 의사소통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 [13] 이순형, 김정연, "보육시설 내 성별에 따른 영아의 교사 및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학*

- 회지, 제18권, 제1호, pp.23-38, 1997.
- [14] 신세희, *만 2세 영아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 [15] 허은희, *만 1세 영아들의 놀이에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영아 간의 상호작용 모습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 [16] 손복영, “0세반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9호, pp.593-618, 2018.
- [17] 이은정,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pp.319-337, 2011.
- [18] 이정미,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 [19] 이선미, 이승미, “영아교사의 정서노동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6호, pp.153-180, 2013.
- [20] 황문희, *어린이집 교사의 적성 및 정서노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3.
- [21] 박은영, 조은정, 정주선,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보육교사의 발달단계 및 보육교사-유아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유아보육학*, 제66권, pp.127-146, 2011.
- [22] 이숙자, 공병호, 성영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교사 변인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18, 2011.
- [23] P. Rochart, *The infant's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2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박영사, 2013.
- [25] 김영석, *질적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세미나자료, 2014.
- [26] N. K. Denzin, *The research act: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McGraw-Hill, 1970.
- [27] 심우림, *만 1세 영아의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청구논문, 2011.
- [28] 최성은,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과 또래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7.
- [29] 손난희, *‘돌봄’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전문성 탐색*,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7.
- [30] 김지영, 김동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과 적용 실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제5호, p.324, 2016.
- [31] 연혜민, 최경, “복스타트 프로그램의 그림책과 활동 동내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972, 2014.
- [32] L. E. Berk, *영아기에서 아동기까지 (이옥경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 [33] 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영아발달*, 파주: 양서원, 2015.
- [34] 권혜진,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을 위한 노동요의 활용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p.278, 2008.
- [35] 정예뿐, *보육교사와 만 1세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7.
- [36] D. N. Stern,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s and m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002.
- [37] D. S. Wittmer and S. H. Petersen, *영아발달과 반응적 교육 (이승연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1.
- [38] 김민화, 광금주, “장난감중심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어머니의 주도성과 반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7권, 제2호, pp.19-35, 2004.
- [39] A. W. Harrist and R. M. Waugh, “Dyadic synchrony: Its structure and function in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Vol.22, pp.555-592, 2002.

저 자 소 개

조 혜 경(Hye Kyung Cho)

정회원



- 198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3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박사)
- 2018년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아보육, 영아놀이